

스페인어 관사 연구: 명사 서술어를 중심으로*

김 은 경

0. 서 론

스페인어문법에 있어서 관사의 연구는 문법요소의 의미분석 방법론의 발전과정과 대동소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전통문법의 범주 내에서는 주로 관사 자체의 한정성이 명사의 종류에 의거해서 논의되었고 구조 및 기능문법에서는 유사한 통사적 기능의 다른 한정어와의 상대적 의미를 설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어휘적 의미적 차원을 넘어 화용적 차원에서 관사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관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 해답을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의문이며, 특히 명사서술어(predicado nominal)의 기능을 취하는 명사구에 있어서 관사의 교번현상(alternancia del artículo)은 그 미묘한 용법상

* 이 논문은 1997년도 어학연구소 연구비로 연구되었음.

¹ 스페인어 전통문법, 특히 한림원문법 내에서는 el과 un을 각각 정관사와 부정관사로 인식해 왔는데, 이는 다분히 Port Royal 불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정관사 el은 한정적 의미를, 부정관사 un은 비한정적 의미를 전달한다는 이른 바 한정이론(teoría de determinación)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과 관점을 달리하는 새로운 이론이 같은 맥락의 전통문법 내에서 거론되어 한정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는데 이는 다름 아닌 Bello (1847)의 공통인지이론(teoría de lo consabido)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적 논리는 정관사 el은 화자와 청자가 공통으로 인지하는 대상에 한해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스페인어의 구조 및 기능문법에 있어서의 관사의 연구는 바로 이 두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는 일련의 가설들을 설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A. Alonso (1951)는 한림원문법이 제시한 el/un의 ‘한정’/‘비한정’ 대립을 el/∅의 ‘존재’/‘본질’의 대립으로 대체하여 정관사의 의미를 존재적 또는 지시적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E. Alarcos (1982)에 이르러서는 Alonso에 의해 부분적으로 거론된 바 있는 부정관사 un의 형태적 통사적 특성의 재인식의 필요성을 구체화하여 이 형태를 관사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수사(numeral)로 간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재분류는 R. Lapesa (1976), M. Marín (1975), M. A. Alavarez (1989) 등의 학자들모하여금 관사를 Bally에 의해 처음으로 거론된 실현어(actualizador)의 일종으로 인식하게 하여 좀 더 확대된 한정어(determinante) 계열 내에서 그 분포에 대한 비교분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편, Bello의 공통인지이론은 전통문법이 표방하는 어휘 의미적 범주를 넘어서서 발화상 황속에서 정관사의 사용을 화용적으로 예견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 L. Carreter (1980)는 정관사를 사후적 제시어(presentador ulterior)로 새로이 정의하였고 Alonso와 Alarcos에 의해 논의에서 제외된 부정관사 un을 정관사에 대해 제시어(presentador)로 정의하여 관사 사용의 화용적 분석의 길이 열리어졌고, Uritani (1986)와 Leonetti (1990)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의 다양함으로 인해 명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맥속에서,

- (1) a. Juan es médico/??santo.
 b. Juan es un médico/santo.
 c. Juan es el médico/santo.
- (2) a. Es médico/*coche.
 b. Es médico psiquiatra/*médico aburrido.

명사구들은 관사의 종류와 유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법성을 달리한다. (1a)와 같은 무관사 명사구는 동일하게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Juan이 실제로 santo가 아닌 경우에는 비문을 형성하고 이와 반대로 (1b), (1c)에서는 관사의 동반으로 인해 모두 적문으로 간주된다. 한편, (2a)에서처럼 동일한 가산명사(sustantivo contable)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일 경우에는 적문을 ‘사물’일 경우에는 비문을 형성하고, (2b)에서는 수식하는 형용사에 따라 문법성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명사의 수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여 (1)과 (2)의 예문들이 모두 복수로 사용된 경우 (1a)와 (2a)는 모두 적문화(Juan y Pedro son santos; Son coches)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통문법학자들은 명사구의 어휘적 의미와 이를 구성하는 명사의 구분에 의존하며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처리할 뿐이며, 구조 및 기능문법의 범주 내에서는 무관사(∅)는 ‘본질’을, 부정관사(un)는 ‘종류’를, 그리고 정관사(el)는 ‘존재’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명사구들은 각각 ‘직업’(profesión), ‘동직업의 한 구성원’(un miembro de tal profesión) 및 ‘확인된 특정인’(un hombre identificado)을 언급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1b)와 같이 부정관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직업’을 묻는 ¿Qué es Juan?에 대한 대답으로도 적합하지만, ‘신분’을 확인하는 ¿Quién es Juan?에 대한 답변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관사 un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구성원에 대한 인지가 화용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Es abuela quien está enferma) 무관사가 ‘본질’이 아닌 ‘확인된 특정인’을 지시하고, 총칭적 의미의 정명사구(SSNN genéricos)에서는 정관사가 ‘특정성’과는 거리가 멀다.²

² 총칭적 의미란 모든 대상을 일반적으로 다 지칭하는 것으로 단수의 정명사구를 통해 이루어졌을 경우 일종의 대표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Leonetti (1990)에 의하면 특정성(especificidad)은 심리적 개념에 해당하는 ‘인지’ 여부, 논리적 개념인 ‘존재’ 여부와도 엄격히 일치되지 않는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언급하지만, 본 연구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지엽적으로 논의된 명사서술어에 있어서의 관사의 교번현상을 스페인어문법이 제공하는 주요한 관사이론들을 중심으로 재인식하여 체계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 먼저 명사서술어를 필요로 하는 연계동사구문(oraciones copulativas)을 살펴보고 연계동사구문의 분류를 토대로 각각 해당되는 명사서술어의 관사의 교번에 대한 분포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1. 연계동사구문

스페인어의 동사는 술부의 서술적 기능을 중심으로 크게 연계동사(verbos copulativos)와 서술동사(verbos predicativos)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연계동사는 모두 ser, estar, parecer 3개이지만 모두 다음의 예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사 자체의 서술적 기능이 약화되고 뒤따르는 명사서술어를 주어와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³

- (3) a. Juan es médico.
- b. Juan está de médico.
- c. Juan parece médico.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ser, estar, parecer동사는 앞의 명사구와 뒤의 명사구를 연결하며 주로 문법적 의미에 해당하는 주어의 성, 수, 및 시, 상, 법을 표현할 뿐이며, 각각 연결하는 명사구의 의미가 주어의 '본래의 자질'(cualidad original), '획득된 자질'(cualidad adquirida), 및 '가상적 자질'(cualidad irreal)임을 의미적으로 내포할 뿐이다. 연계동사의 보어에 해당하는 명사서술어는 광의의 명사(nombre)로 구성되는데 협의의 명사(sustantivo)와 형용사가 주종을 이룬다.⁴ 물론, 전치사구(Es de Madrid) 또는 부사(Es así)가 보어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사의 한정을 받는 명사로 이루어진 연계동사구문만을 제한적으로 살펴보면 문맥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서는 특정성을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지시적 개념이라는 화용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³ 연계동사구문과 일반적 서술구문의 경계를 동사의 형태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대표적 계사라 할 수 있는 ser동사의 경우에도 서술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La fiesta es el próximo sábado), 서술동사에 해당하는 encontrar, hallar 등도 문맥에 따라 연계동사구문의 기능을 취하기도 한다(María se encuentra/halla enferma).

⁴ 스페인어는 국어와 달리 형용사가 명사와 근접한 품사에 해당한다. 광의의 명사(nombre)를 설정하고 그 하위 범주로서 명사(sustantivo)와 형용사(adjetivo)로 구분하는 것은 Coseriu (1962)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오늘날 스페인어의 기능문법학자들 사이에 이미 일반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

- (4) - ¿Quién es aquella mujer?
- Aquella mujer es una/la novelista.
- (5) - ¿Qué es ella?
- Ella es novelista.
- (6) - ¿Cuál es la cosa rota?
- Es un/el cuadro.
- (7) - ¿Qué es esto?
- Es una pluma/ø leche.

(4)와 (6)의 경우처럼 Quién과 Cuál을 사용하는 의문문은 명사서술어가 지시적(referencial)인 답변을 유도하고, (5)와 (7)의 경우처럼 Qué를 사용하는 의문문은 명사서술어가 비지시적(no referencial o atributivo)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구분이 시사하는 점은 연계동사구문은 외형적으로 N1 + ser + (det.) N2로 구성되어 형태적 구분이 어렵지만 의미적으로는 발화상황에 따라 N2의 지시성 여부에 따라 구문의 구분이 가능하고 이 구분에 의거한 한정어인 관사의 형태 및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계동사구문의 통사적 특성은 명사서술어가 중성대명사 lo에 의해 치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 (8) a. - Juan es loco.
- Sí lo es.
b. - Juan está loco.
- Sí lo está.
c. - Juan parece loco.
- Sí lo parece.

Alarcos (1982)는 이와 같은 치환의 가능성을 연계동사구문의 고유 기능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수동문도 연계동사구문으로 간주하며, 스페인어에는 수동의 의미는 존재해도 문법적인 수동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 (9) a. - La noticia es divulgada.
- Sí lo es.
b. - La tirada fue reducida.
- Sí lo fue.

Carreter (1980)는 (9)와 같은 치환의 가능성 하나만으로는 수동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수동문은 나름대로의 통사적 특성들이 존

제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⁵ 이와 같은 구문이 수동문인가 아니면 연계동사구문인가는 본 연구와는 일단 무관해 보인다. 왜냐하면, 명사서술어로 사용된 형태가 과거분사 또는 형용사로서 관사의 한정을 받지 못한다는 측면이 이러한 유형을 논의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유형에 사용된 과거분사가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관사의 한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 (10) a. La noticia es ?una/la divulgada.
b. La tirada fue una/la reducida.

이 경우는 ¿Cuál es (fue) la noticia (tirada) que buscas?와 같은 의문문의 답변으로 앞서 살펴본 예문 (6)의 경우처럼 N1과 N2의 지시물(referente)이 공지시(coreferencia)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명사서술어는 다음과 같은 타동사구문의 목적보어로도 사용되는데,

- (11) a. Nombraron a Juan (*el) embajador.
b. Lo designaron (*el) ministro.
c. Lo consideran (*el) tutor.

이 때 명사서술어는 이차적 술부(predicación secundaria)를 구성하고 이러한 서술이 의미적으로는 연계동사구문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11)에 나열된 문장에 사용된 명사서술어들은 ‘특정인’이 아닌 ‘직함’ 또는 ‘직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관사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비문을 형성한다. Bosque (1996, 62)는 앞서와 같이 이차적 술부를 형성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구문에서도 명사구가 ‘직위’, ‘직함’ 또는 ‘배역’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무관사가 일반적이라고 했다.⁶

⁵ Carreter의 반박은 본질적으로 연계동사구문과 ser수동문은 외형적 일치에도 불구하고 그 생성과정에서 구분된다는 것이다. 요약해서 언급하자면, 수동문의 경우에는 수동변형 이전의 능동문을 전제할 수 있어 두 문장 간의 동의어 현상을 상정할 수 있지만, 연계동사구문은 그와 같은 전제가 불가능하고, 분포적으로도 수동문에 사용된 과거분사들은 다른 과거분사와 대체되지만, 연계동사구문에 사용된 과거분사는 이미 형용사로서 과거분사가 아닌 다른 형용사와의 대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동문과 연계동사구문을 동일한 유형으로 간주하는 것은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스페인어에 대해 갖고 있는 직관적 언어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기계적 판단이라는 의견이다.

⁶ Bosque (1996, 63)는 고유명사가 배역을 의미할 경우도 유사한 통사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보여준 바 있다.

Fue de Blancanieves de quien/de lo que se disfrazó.

즉, 관계대명사 lo que를 사용하는 경우는 선행사인 고유명사를 극중 배역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이미 보통명사화했기 때문이다.

- (12) a. Con Juan como (*un) miembro de nuestro equipo.
 b. Estoy haciendo de(*l) ayudante.
 c. Lleva años de (*un) ingeniero civil.
 d. Se disfrazó de (*un) payaso.
 e. Lo ascendieron a(*l) jefe de sección.

(11)과 (12)에 나열된 명사구들은 그 통사적 기능이 서술적 보어(complemento predicativo)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의미적으로 비지시적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예문(5)의 경우와 일치하며 모두 무관사로 사용되어야만 적문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계동사구문에 있어서 명사서술어의 관사의 교번현상은 그 명사서술어가 지시적인가 아니면 비지시적인가의 일차적 구분에 의거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사용된 명사의 종류와 수에 의해 각각 구분 상의 특성이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Predicados nominales referenciales

지시적 명사서술어를 요구하는 연계동사구문을 Lyons (1977)는 등위문(ecuativas)으로 간주하고 명사서술어의 지시물을 주어의 지시물과 동일함을 보이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며, 주어의 지시물에 자질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성문(atributivas)과 구분한다. Uritani (1986)와 Fernández Leborans (1993)는 등위문을 크게 확인문(identificativas)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확인문 내에 등위문 외에도 비등위문(no ecuativas)을 포함시키고 있다. 등위문의 특징은 1장의 (4)와 (6)에서처럼 사람인 경우에는 Quién을 사물인 경우에는 Cuál을 사용하는 의문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

- (13) a. - ¿Quién es Juan?
 b. - Es el profesor.
 (14) a. - ¿Cuál es el objeto perdido?
 b. - Es una estatua.

(13b)과 (14b)는 명사서술어가 각각 지시물을 해당되는 주어의 지시물과 동일함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확인문이며, 동시에 (13b)와 (14b)는 주어와 명사서술어의 자리를 바꾸어도(El profesor es Juan; Una estatua es el objeto perdido) 문법성과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등위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위문은 주어와 명사서술어가 공지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Uritani (1986, 126)에 의하면 비등위문(비등위적 확인문)은 사람인 경우에는

Quién으로 사물인 경우에는 Qué로 이루어지는 의문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

- (15) a. - ¿Quién es él?
 b. - Es un profesor.
- (16) a. - ¿Qué es esto?
 b. - Es un libro.

(15b)의 명사서술어는 *éste*, *aquél*, *ése*로 치환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등위문(13b)와 구별되고, (16b)는 등위문을 유도하는 *Cuál*에 대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Lyons가 언급하는 자질부여적 명사서술문에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한다. 또한 비등위문은 등위문과 달리 주어와 명사서술어의 자리 바꿈이 있을 경우 문법성이 약화되는 것이 특징이다(?Un profesor es él; ?Un libro es esto). Uritani가 비등위문을 확인문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등위문에서는 주어와 명사서술어가 동일한 대상("token": *ejemplar*)을 지시하고 비등위문에서는 동일한 유형("type": *tipo*)을 지시하기 때문에 등위문에서는 절대적 공지시가 비등위문에서는 상대적 동지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15)에 비록 *Quién*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시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이는 (16)에서도 *Cuál* 대신 *Qué*가 사용된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된다. (15b)와 (16b)는 각각 '교수' 및 '책'이라는 직업 및 사물의 종류(*Clase*)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며 주어를 개별화(*individualización*)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⁷ 왜냐하면, (13)과 (14)와는 달리 (15)와 (16)은 주어가 인칭 및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한 의문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에서는 확인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적어도 그 답변은 단순히 *soldado*와 *mesa*가 아닌 *profesor*와 *libro*라는 계층적 의미를 넘어서서 계층의 일원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⁷ Uritani (1986)가 언급하는 개별화의 개념은 비지시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다루어진 것과 차이가 있다. Uritani는 *un*이 후-확인문의 명사서술어를 한정할 경우 개별화 요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개별화의 개념을 제한한다. 후-확인문은 *Qué*의 유도를 받은 의문문의 답변이기 때문에 명사서술어는 주어의 자질을 언급할 뿐이기 때문에 지시적이지 아니며, 주어가 지닌 자질의 일부를 감정이입적으로 *un*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현상을 개별화라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화를 동 종류의 하나의 개체로서 인식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Uritani가 언급하는 개별화를 *un*이 내포하는 개별화 기능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un* 또한 한정어의 하나로 *el*이 취하는 명사화 요소로서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un*에 의해 유도된 요소는 그 범주가 명사가 아닌 경우 *un*을 통해 명사적 단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un santo*).

⁸ Bosque (1996, 57)는 *Este hombre es escritor/Este hombre es un escritor*는 각각 *¿Qué es este hombre?*와 *¿Quién es este hombre?*에 대한 답변으로 전자의 명사서술어는 주어에 '자질'을 부여하고 후자의 명사구는 그러한 '자질'을 소지한 개체들중의 하나

따라서, Uritani의 비등위적 확인문의 명사서술어는 지시성이 약화된 개별적 의미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지시적 명사서술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관사 또는 부정관사의 한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총칭적 지시의 경우에는 무관사도 가능하다.

- (17) a. El animal más fuerte es el león.
 b. Un caballo es un animal doméstico.
 c. Hombre no es lo mismo que caballo.

(17)의 문장들은 모두 총칭적 지시의 명사서술어가 사용된 문장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지만, (17a)는 주어와 명사서술어를 치환해도 문법성과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17b)의 경우는 Uritani (1986, 117)에 의하면 문법성이 약화되는(??Un animal doméstico es un caballo) 것 외에도 (17b)는 ¿Qué es un caballo?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위문인 (17a)와는 달리 비등위문이라 할 수 있다. (17c)의 경우는 총칭적 의미가 개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17a) 및 (17b)와 구별되고 비교의 대상을 표기한 중성관사 lo가 이를 잘 보여준다.⁹ Alonso (1951)는 무관사가 수사적으로는 정관사나 부정관사에 비해 현격하게 강조적이라 했는데¹⁰ 이는 정관사나 부정관사의 한정을 받는 명사구가 단순히 지시물만을 확인해주는 것에 비해 이러한 지시물의 확인 외에도 무관사 한정은 명사 자체의 개념적 의미를 아울러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총칭적 의미가 개념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사용된 명사의 종류가 추상명사일 경우에는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강조적 의미의 전달도 상

라고 하며 부정관사가 유도되는 경우에는 제한적 의미의 수식어가 동반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un의 개별화 기능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⁹ 'Hombre no es lo mismo que caballero'에서 명사서술어가 lo를 통해서 대명사화할 수 있다는 것은 Quién에 의해 유도된 확인문의 명사서술어가 lo를 통해서 대명사화하는 것이 회피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 ¿Quién es Juan?
- Es el médico (que vino ayer).
- Sí, ??lo es / (Sí, es él).

연계동사구문의 명사서술어가 모두 lo에 의해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명사서술어가 지시적일 경우에는 '자질'을 대신하는 lo보다 인칭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문맥적 대체는 명사서술어의 지시성의 판별에 사용될 수 있겠다.

¹⁰ Bello (1981, 517)도 Alonso와 유사한 판단을 한 바 있는데, 단순히 무관사를 통해서 주어를 서술할 경우(Es holgazán)는 주어의 부정적 자질을 전달할 뿐이지만 부정관사의 한정을 하는 경우는(Es un holgazán) 그와 같은 자질이 주어의 주요 자질이며 바로 대표적 특징처럼 느껴지게 한다고 했다.

대적으로 배가된다.

- (18) a. Democracia es caos.
- b. Virtud es felicidad.
- c. Esperanza es vida.
- d. Vino es alegría.

이와 같은 구문들을 Fernández Leborans (1993, 152)는 총칭적 의미의 확인 문으로 간주하는데, 사용된 명사서술어가 주어에 대한 자질 부여적 역할보다 그 지시 대상을 주어의 지시물과 동일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주어가 관사의 한정을 받게 되면(?La(??Una) democracia es caos) 정관사의 경우에는 특정성을 부정관사의 경우에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아 본래의 보편적 의미가 상실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판단에 의거하면, (18)에 나열된 명사서술어도 총칭성을 개념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또한 (17c)와 (18)의 모든 구문들이 개념을 묻는 Qué를 사용하는 의문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에서 (17b)의 경우처럼 비등위문을 형성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지시적 명사구는 주로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한정을 받는다는 형태적인 제약으로 인해 정보구조 상으로는 구정보(tema)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시적 명사서술어들은 모두 신정보(rema)라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신정보는 적어도 청자는 인지하지 못한 정보라는 점에서 명사서술어가 정명사구일 경우에는 Bello의 ‘lo consabido’이론이나 Carreter의 ‘presentador ulterior’이론이 일단 적용되기 힘든 문맥처럼 보일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 (19) a. - ¿Quién es Juan?
- b. - Es el autor de “Luna de lobo”.
- c. - Es un autor.

(19b)의 정명사구는 정보구조상으로는 청자에게 신정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화자의 입장에서는 (19a)의 Juan은 화자 및 청자가 모두 공유하는 정보, 즉 인지된 지시물이라는 점에서 비록 (19b)에 사용된 정명사구가 전달하는 내용이 청자에게는 새로운 정보일지라도 적어도 대상이 동일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형태적으로 정관사의 한정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Bello 및 Carreter의 이론이 적용 불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다. 그러한 경우, (19c)의 부정관사는 불가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화자와 청자 간의 공유된 지시물로서의 Juan에 대한 인지는 있으나 화자 또한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어 단순히 그러한 업무의 종사자들 중의 하나임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부정관사 un을 사용한 것이고 이 문맥이 담화상 다시 ¿De dónde es el autor?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사용된 부정관사 un은 Carreter의

‘presentador’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연계동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맥에서의 un을 통한 명사구의 한정은 약화된 의미의 지시적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와 같은 (19c)의 약화된 지시적 의미는 (19b)의 전형적인 지시 의미와 통사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이미 주(8)을 통해서 암시했던 것처럼 (19b)에 대한 부가적 답변으로 제3의 대화의 참여자는 ‘Sí es él’로 개입할 수 있지만 ‘??Sí lo es’로 개입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19c)의 경우에는 제3자의 개입이 ‘?Sí es él’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De dónde es el autor?’로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ti*과 *un*의 지시적 의미가 비교될 수도 있다.

3. Predicados nominales no referenciales

명사구가 비지시적이란 것은 그 명사구가 어떠한 대상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지시물이 없을 경우 명사구는 ‘자질’ 또는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어서 명사서술어가 비지시적일 때에는 그 기능이 주어에 대한 자질 부여적(atributiva)일 수 밖에 없겠다. 자질 부여에 대한 언급은 기 확인된 대상물에 대한 묘사 또는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Uritani (1986, 138)는 이러한 명사서술어구문을 확인문과 구별하여 후-확인문(post-identificativas)이라 정의한 바 있다.

Uritani는 후-확인문을 분류구문(clasificativas)과 개별화구문(individualizadoras)으로 구분하는데 다음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각 해당되는 명사서술어는 무관사 또는 \emptyset 형 및 부정관사 *un*의 한정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 (20) a. Soy \emptyset español/profesor/vegetariano/católico/socialista.
 b. Es \emptyset ?buen médico/ingeniero civil.
- (21) a. Juan es un genio/ladrón/tirano/holgazán.
 b. Juan es un hombre genial.
 c. Juan es un asco de hombre/horror de chico/encanto de persona.

(20)과 (21)의 후-확인문들은 모두 의문사 *Qué*에 의해 유도된 의문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된 연계동사구문들로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의 자질적 구체성의 정도에 의해 각각 무관사와 부정관사가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¹¹ 즉, 분류구

¹¹ Uritani (1986, 154)는 실제로 \emptyset 와 *un*의 분류 및 개별화의 정도를 다음과 같은 Fernández Lagunilla의 예문의 비교를 통해서 단계적인 등급을 설정하기도 했다.

Mi primo es un ??governador/?socialdemócrata/capitalista, idealista, reaccionario.

이 비교가 시사하는 것은 명사가 ‘직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한 쪽의 극단을 이루고

문에 해당하는 (20a)의 문장에서 명사서술어는 앞서 1장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주어의 국적, 직업, 체질, 종교 및 정치적 경향을 언급함으로써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을 포함하는 집단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명사구는 (21b) 처럼 일반적으로 제한적 의미의 수식어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부정관사 un의 한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20b)는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으나 Uritani (1986, 155)에 의하면 수식어가 있는 경우에도 수식받은 명사구가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un의 한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Bosque (1996, 57)는 이와 같은 무관사 한정어 가능한 형용사들을 분류 또는 관계의 형용사(adjetivos clasificativos y relacionales)로 명명하며 제한적 기능의 형용사와 구분한다.¹² Uritani와 Bosque가 말하는 객관적으로 사회적 집단으로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분류적 의미의 형용사들은 실제로 제한적 형용사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우선 buen médico 그룹과 그렇지 않은 의사의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판단된다기보다 개인적인 판단이 우선적일 것 같다. 따라서 Bosque가 언급한 것처럼 분류 내지 관계를 의미하는 형용사를 제한적 의미의 형용사와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또한 어휘 분석이 선행되어졌을 때나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Bosque (1989, 119)는 품질형용사와 관계를 의미하는 형용사를 구분한 바 있는데,

- (22) a. calificativos: caballuno/cívico/paternal/provinciano/sedoso/musculoso
 b. relacionales: caballar/civil/paterno/provincial/sedero/muscular

이러한 구분은 (20b)와 같은 명사서술어의 관사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관계를 의미하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서술어가 무관사 한정어 가능하다는 것은 그 관계가 전치사구를 통해 직함을 의미할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이 될 수 있다.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는 반대편의 극단을 이루면서 ‘성향’ 쪽으로 기우는 경우에 un의 개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의 socialdemócrata의 경우 과연 이것이 ‘직위’와 ‘성향’의 중간적 단계인가 하는 점이다.

¹² 제한적 의미의 품질형용사를 관계를 의미하는 형용사와 구분하는 작업 자체는 어휘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의 의미가 그형용사를 사용하는 화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특정 의미화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본질적으로 배제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Bosque (1996)는 ‘Es entrenador diplomado’와 같은 문장에서 diplomado는 관계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entrenador sin diploma와 구분된다는 의미에서 un의 사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화자가 이 형용사를 강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un의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관계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가 un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채집된 표본에 대한 확률적 해석에 가깝다.

- (23) a. Es director del Banco Nacional/presidente del comité ejecutivo.
 b. Es miembro del Gremio Tequilero de Guadalajara/jugador de la selección coreana.

Lapesa (1976, 127)도 동격을 설명의 동격(*aposición-comentario*)과 확인의 동격(*aposición-identificación*)으로 구분하는데 아래와 같은 설명의 동격의 일부는 무관사 한정어로 범주적 개념(*noción categorial*)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언급해온 관계의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은 명사서술어의 무관사 한정과 유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24) a. Tu proyecto, intento nobilísimo, está condenado al fracaso.
 b. Luis, miembro de aquella sociedad, conoció mejor los hechos.

이 두 예문 중 객관적인 사회의 한 집단의 소속을 의미하는 (24b)와는 달리 (24a)에는 절대최상급 주관적 의미의 품질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무관사로 출현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화자의 입장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와 무관하게 명사를 비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사의 사용에 있어 화자의 화용적 판단이 어휘 의미적 제약보다 우선적임을 시사하는 실증적인 예가 아닌가 한다. 부연하자면, (22b)에 나열된 관계의미의 형용사들만이 이와 같은 분류구문에서 반드시 무관사로 명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형용사인 경우에도 화자가 의도적으로 무관사 명사서술어를 만들어 명사구 전체의 의미를 개념적인 것으로 추상화하여 그 본질적 의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해 (21)에 나열된 명사서술어들은 이미 Alonso (1951)에 의해 지적되고 Lapesa, Fernández Lagunilla 등에 의해 연구된 바 있는 감정어입 또는 가치부여적 형용사(*adjetivos afectivos o valorativos*)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반드시 부정관사 *un*의 한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설명이 가능하다. 즉, (21a)의 명사들은 그 표현의 의도가 주어 소속한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집단의 일원으로 분류한다기보다 주어가 보이는 한 가지 자질적 특성을 통해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1a)의 명사구들은 다음과 같은 'un + hombre + adj. calificativo afectivo o valorativo'의 구조로 대체될 수 있다.

- (25) a. un genio: un hombre genial
 b. un ladrón: un hombre ladrón
 c. un tirano: un hombre tirano
 d. un holgazán: un hombre holgazán

(25)에 풀어쓰여진 명사구들이 부정관사의 한정을 받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21a)에 나열된 명사들은 (25)의 풀어쓰여진 구조에서 미루어 짐작되는 일반적 의미의 명사가 생략된 형태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Uritani (1986)는 (21a)와 같은 명사구들만이 자질을 강조하는 의미의 *todo*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종류의 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장자체가 후-확인문이 아니라 확인문에 가깝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문장들에서,

- (26) a. Juan es todo un genio/ladrón/tirano/holgazán.
 b. Juan es un médico/estudiante/abogado/portero/socialista/profesor.
 c. Juan es todo un médico/estudiante/abogado...

(26a)와 같이 명사가 *todo*의 수식을 받아도 명사서술어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부각하려는 특질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비해 (26b)에 나열된 명사들은 (26a)에 나열된 명사들처럼 자질부여적 의미보다 직접적으로 대상을 지칭하는 성격이어서 문장 자체가 *Quién*에 의해 유도된 확인문의 답변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한 지적해야 할 점은 (26c)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6b)에 사용된 명사들을 명사 자체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화자가 의도적으로 자질부여적인 명사서술어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문법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정이입 또는 가치부여적 명사들만이 *un*을 통하여 자질을 강조하는 명사서술어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렇지 않은 명사들도 *todo*의 수식을 받아 자질 부여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문맥에서의 *todo*를 확인문을 후-확인문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21c)는 김은경(1997)의 'N1 + de + N2'의 연구에서 N1이 추상명사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유형의 특징은 N1의 추상명사는 다름아닌 N2가 지칭하는 대상이 보여주는 하나의 자질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N1과 N2의 치환을 통해서 N1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21c)의 명사서술어들은 강조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21b)와 동일하다.

- (27) a. un asco de hombre: un hombre de asco
 b. un horror de chico: un chico de horror
 c. un encanto de persona: una persona de encanto

(27)의 우측에 위치한 명사구들은 각각 *un hombre asqueroso*, *un chico horroroso*, *una persona encantadora*와 동일한 의미로서 제한적 의미의 품질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부정관사의 한정을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다.

(20)과 (21)의 대표적인 예문들을 통해 살펴본 비지시적 명사서술어에 있어서 관사의 사용은 화자가 명사서술어를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의 사회적 소속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는 \emptyset 를 품질적 수식 또는 감정이입이나 가치부여적 주관

적 판단을 통해 구체화할 경우에는 un을 통해 한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우리와 유사한 맥락에서 Uritani는 ∅를 분류소(clasificador)로 un을 개별화요소(individualizador)로 정의하는데 부정관사 un의 기능을 ∅ 및 정관사 e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로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만, 과연 이 형태가 복수로 사용될 경우에도 개별화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28) a. Son unos(∅) genios/ladrones/tiranos/holgazanes.
 b. Son unos(∅) hombres geniales.
 c. Son ??unos ascos de hombres/horroses de chicos/encantos de personas.

(28a) 및 (28b)의 경우에는 복수의 부정관사로 인해 명사구의 양화적의미가 강화되어 문자의 의미가 자질부여적인 후-확인문에서 지시적 의미의 확인문화하여 Quiénes에 의해 유도된 의문문의 답변으로 바뀌며, (28c)의 경우에는 'N1 + de + N2' 구조 자체가 N1이 추상명사일 경우 un이 복수일 경우를 문법적으로 비문을 유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수의 부정관사가 그대로 사용되어야만 본래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Son un asco de hombres/un horror de chicos/un encanto de personas). 따라서, 부정관사 un이 개별화요소로서 기능하는 것은 단수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Donnellan (1971)은 정명사구가 화용적으로 지시적(referencial)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비지시적, 즉 자질부여적(atributivo)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한 바 있는데, 이는 정명사구가 명사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Uritani (1986, 142)가 직위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의 경우에는 정관사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명사서술어는 자질부여적이라 했는데,

- (29) a. - ¿Qué es Don Juan Carlos?
 b. - Es ∅/el rey de España.
 (30) a. - ¿Qué es Felipe González?
 b. - Es ∅/el presidente del gobierno.

(29b)와 (30b)에 사용된 정명사구들은 Qué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에서 자질부여적인 의미를 전달하며 무관사의 비한정 명사구와 그 의미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문장에서처럼 문맥적으로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29b)와 (30b)가 발화되었을 경우에는 정명사구의 해석이 중의적으로 확인문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시사하는 것은 ∅만이 분류화요소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며, 정관사도 문맥에 따라 분류화요소로서의 기능을 잠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논의한 연계동사구문에 있어서 명사서술어에 사용된 관사의 교변 현상은 \emptyset 는 ‘본질’을, un은 ‘개별화’를, 그리고 el은 ‘확인’적 의미를 한정하는 명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찍이 관사의 대립은 한정/비한정의 el/un의 대립에서 출발하여, un의 범주적 의미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el/ \emptyset 가 이루는 존재/본질의 의미적 대립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실현소(actualizador)에 대한 인식을 통해 관사를 다른 한정어들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관사에 대한 통사적 분석을 넘어선 화용적 접근도 이루어졌다. \emptyset /un/el이 본질/개별화/확인의 대립을 형성한다는 견해는 어느 특징인에 의해 설정된 이론이라기보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미시적인 견해들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얻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mptyset 가 ‘본질’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전통문법에서부터 직간접적으로 거론되다가 Alonso에 의해 ‘esencia’로 설정된 것이며, un이 ‘개별화’요소라는 것은 un의 범주가 수사라는 Alarcos의 주장이 있는 후부터 un의 기본적 의미가 숫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의미할 뿐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다. el이 ‘확인’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Bello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정관사가 공통인지된 대상을 지칭하는데 사용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존재의 확인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관사의 대립은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emptyset 를 ‘본질’을 의미한다는 전통적 가설대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유표적으로 ‘분류소’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며, 다른 하나는 정관사 el의 변별적 자질을 ‘확인’으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다.

먼저, 정관사 el은 앞서 살펴본 바와도 같이 화자가 의도적으로 자질부여적인 화용적 해석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극소수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시적 의미를 지닌다. 정관사의 지시적 의미는 스페인어에 있어서는 어원적 의미에 해당되기 때문에 Bello의 경우에는 정관사를 공간적 위치를 지정하는 기능은 상실되었지만 지시의 기능은 여전히 남아있는 대명사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관사가 오늘날 표현하는 지시 기능은 대상물을 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확인된 하나의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의미만으로는 정관사의 기능의 본질을 모두 포괄하기 힘들다. 따라서, ‘확인’이라는 자질의 의미를 ‘유일 대상의 확인’으로 재해석하여 사용하든지 아니면 유일한 대상이라는 의미에 중점을 두어 Dapena (1985)가 언급한 바 있는 ‘유일성’(unicidad)을 ‘확인’을 대체하는 자질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일성’이라는 개념은 지칭된 대상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구별된다는 의미와 복수의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대상들에 대한 구별되는 집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유일 대상에서부터 총칭적 지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el을 ‘유일성’으로 설정할 경우 un이 내포하는 ‘개별성’(individualidad)의 개념은 정관사 el에 대해 un은 동일한 대상

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으로 'token'/'type'의 구분과 유사하게 설정될 수 있다.

el과 un의 변별적 자질을 각각 '유일성'과 '개별성'으로 설정하는 경우 \emptyset 은 두 형태에 대한 무표적인 것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mptyset 의 한정을 문맥에 의거하여 '본질', '분류' 등 심지어는 '총칭'적 의미에까지 용례적 적용을 하는 것보다 '유일성'과 '개별성'이 결여된 요소로 간주하면 앞서 나열한 모든 문맥적 의미들이 포괄적으로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어의 관사 el/un/ \emptyset 의 대립은 '유일성'/'개별성'/'-유일성'/'-개별성'의 대립으로 축약되는데 이와 같이 단순화된 관사의 대립이 관사가 문맥속에서 일으키는 모든 교번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부연 설명이나 역사적 흐름속에서 굳어진 어휘화 현상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 그 정상적 사용의 예측이나 기 사용된 형태의 논리적 해석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참 고 문 헌

- Alarcos, Llorach. E. (1982) 'Pasividad y atribución en español,'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Madrid, Gredos, 163-171.
- 'El artículo en español,' Ibid., 223-234.
 - 'Grupos nominales con 'de' en español,' Ibid., 249-259.
 - 'Un, el número y los indefinidos,' Ibid., 275-286.
- Alonso, A. (1951) 'Estilística y gramática del artículo en español,' *Estudios lingüísticos: temas españoles*, Madrid, Gredos, 125-160.
- Alvarez, Martínez (1986) *El artículo como entidad funcional en el español de hoy*, Gredos.
- _____ (1989) *El pronombre I: personales, artículo, demostrativos, posesivos*, Arco/Libros, Madrid.
- Bally, C. (1950) *Linguistique générale et linguistique française*, Berna, Francke.
- Bello, A. (1981)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ed. R. Trujillo, Univ. de la Laguna, Tenerife.
- Bosque, I. (1989) *Las categorías Gramaticales: relaciones y diferencias*, Síntesis, Madrid.
- _____ (1996) 'Por qué determinados sustantivos no son sustantivos determinados,' *El sustantivo sin determinación: la ausencia de determinante en la lengua española*, Visor, Madrid, 13-119.
- Coseriu, E. (1967) 'Determinación y entorno,' *Teoría del lenguaje y lingüística genetal*, Madrid Gredos, 282-323.
- Dapena, Porto J. A. (1985) 'A vueltas de nuevo con el artículo,' *Actas del*

- Congreso Asiática de Hispanistas*, 1, 147-162.
- Donnellan, K. (1971)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 *Semantics*, ed. Steinberg y Jakobovits, Cambridge Univ. Press, 100-113.
- Fernández Lagunilla, M. 'El comportamiento de 'un' con sustantivos y adjetivos en función de predicado nominal,' *Serta Philologica F. Lázaro Carreter*, I, 195-208.
- Fernández Leborans, M. J. (1993) 'Oraciones copulativas identificativas de interpretación inferencial,' *Cuaderno de lingüística*, Instituto Ortega y Gasset, 151-179.
- Fernández Ramírez, S. (1986) *Gramática española: el nombre*, Arco/Libros, Madrid.
- Gili Gaya, S. (1961)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ibliograf, Barcelona.
- Kim, Un Kyung (1997) 'N + de + N en español,' *Language Research*, 33-3, Univ. Nacional de Seúl, 389-407.
- _____ (1993) '대격전치사 a,' *이베로아메리카연구* 4, 139-178.
- Lapesa, R. (1962) 'Sobre las construcciones el diablo del toro, el bueno de Minaya, ay de mí, pobre de Juan, por malos de pecado,' *Filología*, VIII.
- _____ (1976) 'El sustantivo sin actualizador,' *Dos estudios sobre la actualización del sustantivo español*, BCP 21, 14-31.
- Lázaro, Carreter. F. (1980) 'El problema del artículo en español,' *Estudios de lingüística*, Ed. Crítica, Madrid, 27-60.
- _____ (1980) 'Sobre la pasiva en español,' *Ibid*, 61-72.
- Leonetti Jungl, M. (1990) *El artículo y la referencia*, Taurus universataria, Madrid.
- Luján, M. (1980) *Sintaxis y semántica del adjetivo*, Cátedra, Madrid.
- Lyons,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 Press, London.
- Marcos, Marín. F. (1975) *Aproximación a la gramática española*, Cincel, Madrid.
- RAE (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Calpe, Madrid.
- Uritani, Nozomu (1986) *Alternancia del artículo en español*, Tesis Doc., Univ. Complutense de Madrid.

ABSTRACT

Spanish Article in Attributive Sentence

Un Kyung Kim

In this work we tried to explain the usage of articles ($\emptyset/un/el$) before Noun Phrases that are used as Nominal Predicate in Copulative Sentences. For this aim we have revised various works on Spanish articles from traditional grammar to recent studies of pragmatic interpretation. Traditionally the Spanish articles have been considered determinants showing a semantic opposition 'determination'(el)/'no determination'(un). But A. Alonso and E. Alarcos negated the so-called indefinite article *un*'s status as article and presented respectively a new opposition between *el* and \emptyset : 'existence'(el)/'essence' (\emptyset) and 'identification'/'classification'.

Starting from this point of view we made an analysis on the alternation of Spanish articles in Noun Phrases of nominal predicate function in copulative sentences dividing them in two groups: referential NPs and no referential NPs. The referential NPs are normally determined by *el* and *un*, but also by \emptyset , when they are of generic meaning, while no referential NPs are modified primarily by *un* and \emptyset with an exception in which *el* occurs demanded by a pragmatically attributive interpretation of definite NPs. As a result we could explain the alternation of Spanish articles by the following opposition: *el/un/∅*: 'identification'/'individualization'/'classification', a synthesis of series of partial points of view made before.

Our contribution could be to provide a new explanation about the alternation of articles particularly in NPs of copulative sentences and to rectify the meaning of *el* and the scope of *un*'s meaning of 'individualization'. That is, it is preferable to consider *el*'s distinctive feature as 'unicity' instead of 'identification' to explain exceptional uses of *el* in no identificative sentences. And this new meaning of *el* can explain our distinction of 'token'(el)/'type'(un) based on *un*'s meaning of 'individuality'. So our \emptyset will be a determinant that doesn't possess 'unicity' and 'individuality', of which it is no more necessary to explain \emptyset giving a sense of 'essence' or 'classification'.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